

# ‘작은거인’ 김선빈이 달라졌다

비시즌 기간 7kg 감량... 날렵한 유격수로 변신  
타격폼 유지 반면 좌우 수비 범위는 “한걸음 더”

**여기는 오키나와**  
한경국 기자, 스프링캠프 현장을 가다

2019 시즌을 앞둔 호랑이들 중 가장 변화된 선수를 꼽으라면 김선빈(29·유격수)이다.

눈에 띄게 살이 빠진 김선빈은 한층 날렵해진 외모를 드러낸 채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선빈은 비시즌기간 동안 다이어트에 집중했다. 나태해지기 쉬운 겨울에도 그는 새 시즌을 위해 7kg이나 체중을 감량했다.

김선빈은 “잘 움직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했다. 지금 72kg 나가는데 앞으로 3~4kg은 더 뺄 생각이다. 목표한 몸무게까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쉽게 잘 안 빠지고 있다”고 말하며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김선빈은 KIA에서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유격수다. 그의 신장은 165cm로 야구선수치고 작은 편임에도 빠른 발과 날렵한 수비, 예리한 송구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한 때 뜬공 처리가 미숙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포구 자세를 수정한 이후 큰 약점 없는 수비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타격 능력도 나쁘지 않다. 2017시즌에는 타율 0.370을 기록, 타격왕에 이름을 올리며 KIA의 11번째 우승에 앞장섰다.

하지만 지난해는 타율이 0.295로 떨어지는 등 폭발력이 조금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선빈은 “2017년에는 많은 것을 이뤘고 2018년은 많은 것을 배웠다. 때문에 올해는 더 성장할 거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살이 많이 빠진 탓인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스윙하는 모습도 조금 달라져 보였다. 타격 폼을 수정했다고 질문을 던지자 김선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타격 폼은 바뀌지 않았다. 괜히 바꾸다가



김선빈

망하는 수가 있다”고 말하며 웃어 보인 김선빈은 “타격 폼은 유지하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수비다”고 설명했다.

김선빈은 이번 캠프기간 동안 수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층 가벼워진 몸을 바탕으로 좌우 수비 범위를 기존보다 더 넓게 커버할 생각이다.

그는 “올 시즌 특별히 세운 목표는 없다. 일단 팀이 우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

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한 시즌 채우는 것을 생각한다”면서 “굳이 목표를 세우자면 수비다. 한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그의 포지션은 유격수다. 유격수는 강습 타구를 막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책도 자주 발생하는 수비 위치다. 김선빈 역시 이에 대한 부담감에 자유롭지 않다.

김선빈은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격수가 안정감을 얻으면 내야 전체가 안정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비력이 좋아지면 자신감을 얻어 방망이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 기대대로 흘러간다면 또다시 타격왕 타이틀에 도전할 만하다.

그러나 김선빈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타격은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

다고 생각한다. 2017시즌 타격왕은 솔직히 운이다. 사실 야구를 하면서 그런 타이틀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며 “다만 프로무대에서 경기를 뛰고, 또 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재밌어서 그것만 신경 썼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성적이 내 성적이었

다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이 훨씬 많았다”며 “나로서 타격왕은 타이틀은 잊지 못할 영광이다. 3할을 처음 넘어섰는데 그게 타격왕이 돼서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빈은 “큰 욕심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팀에 피해만 안 가게 플레이 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전남선수단, 종합 10위 선전... 광주 11위

4일 일정 100회 동계체전 폐막  
귀화선수 프롤리나 안나 2관왕  
화순초 선수단 50점 득점 두각



광주선수단 동계체전 은메달리스트 이정은(왼쪽)과 김예나.

100돌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강원 등지에서 분산 개최된 전국동계체전이 폐막했다.

광주는 스키 스노보드에 출전한 이정은(평창대회전)과 김예나(하프파이프)가 각각 은메달을 따내는 데 힘입어 187점을 획득하며 제98회 체전에 이어 종합 11위를 달성했다.

전남이 스키와 바이애슬론 종목의 선전으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획득 포함 종합득점 194.5점을 마크하며 종합 10위에 올랐다.

이로서 전남은 충북(9위, 217점)에 이어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경쟁 사·도인 광주(11위, 충남(12위, 161점), 경남(13위, 151점)을 따돌렸다.

이같은 성적은 99체전 종합 11위 보다 1등급 상승함과 아울러, 이번 대회 참가 목표

(종합 12위)를 2계단이나 능가한 것이다.

봅슬레이·스켈레톤을 제외한 6개 종목에 111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전남은 화순초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단이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50점으로 총득점 대비 25.7%를 점유하며 선전한 덕을 봤다.

‘러시아 귀화선수’ 프롤리나 안나(35·한국명 서안나)를 앞세운 바이애슬론이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43점(총득점 대비 22.1% 차지)을 획득한 것도 큰 힘이 됐다.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부(스키, 바이애슬론, 빙상)의 팀 창단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경쟁 사·도의 빙상종목다 득점 획득(충북 103점, 광주 49점)을 참고하여 소수의 선수로 다득점이 가능한 알파인 선수 집중 육성 및 다득점, 다메달이 가능한 빙상(쇼트트랙, 스피드, 피겨) 종목의 팀 창단 및 학교 클럽스포츠 운영 등 선수지원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 광주서석중 이종한, 전국 검도왕 등극

2019 SBS배 전국검도왕대회서 개인전 우승  
이성환(서석고 3)·이정환(진남초 6) 형제 검객

광주 서석중 이종한(3년)이 올해 첫 전국대회서 우승하며 검도왕에 등극했다.

이종한은 지난 20~2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9 SBS배 전국검도왕대회’ 중학부 결승에서 권승민(충북 주성중 3년)을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1~2회전을 무난하게 통과한 이종한은 16강에서 박준서(서울 성남중)를 8강에서 김한결(순천 왕운중)을, 준결승에서 양진희(전북 익산중)를 각각 2-0으로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라이벌 권승민을 만나 경기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머리치기를 연달아 성공시켜 검도왕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종한은 둘째 형인 이성환(서석고 3년), 막내 동생인 이정환(맥심검도관, 진남초 6년)과 함께 검도를 하는 형제 검객이다. 형과 동생은 이번 대회에서 입상하지는 못했다.

이성환은 2016년 중학생 시절에 팀 주장으로서 SBS배 대회 준우승, 제26회 회장기 전국중고교대회 우승, 제45회 전국소년체전 단체 준우승을 하는 등 예이스로 활약한 전력이 있다.

막내 이정환은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각종 전국대회, 지역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고 있는 당찬 소년이다. 이정환은 5월에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초등부 지역 예선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검도 형제 이정환, 이종한, 이성환.

## 양희영, 혼다 LPGA 타일랜드 우승... 통산 4승

양희영(30·피엔에스)이 태국에서 또한 번 우승했다.

양희영은 24일 태국 춘부리 시암 컨트리 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657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찍어낸 양희영은 호주 교포 이민지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리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양희영은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우승 기록을 추가했다. LPGA 통산 4승째다.

4승 중 3승이 이 대회에서 나왔다. 2013년 3월 처음 이 대회에서 정상을 맛보더니 2년 전에도 당시 코스 레코드를 22언더파 266타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양희영은 올해 우승으로 이 대회에서 3승을 갱신 최초의 선수가 됐다.



뉴스

## 전남드래곤즈, 2019 시즌 유니폼 공개

용비 디자인 특징... 4종 색상 출시

전남 드래곤즈(사장 조정명)가 2019 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전남의 2019 시즌 새 유니폼 ‘Escudo de Dragons(에스쿠도 데 드라곤즈)’는 스페인어로 용의 방패라는 뜻으로, 전남 엠블럼 외형을 반복시켜 만든 용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유니폼은 구단 공식용품 후원사인 조마(JOMA)가 제작하였으며, 유니폼 디자인은 이번 시즌 구단 디자인 전반을 총괄하는 스포츠디자인 전문회사, 라보나 크리에이티브가 맡아 구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9 시즌 전남 유니폼은 옐로우, 블랙, 그린, 핑크 4종 색상으로 출시된다.

휴 유니폼은 기존의 레몬 노란색보다 좀 더 진하고 차분한 톤으로 변경되어 무게감을 주었으며, 원정 유니폼은 울 블랙 바탕에 옐로우마킹으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전남은 홈경기에는 노란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고, 원정경기에서는 검정/검정, 노랑/노랑 등 상대팀 색상과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착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골키퍼 유니폼은 녹색과 함께 색상 다양성을 위한 핑크색 유니폼을 새롭게



구성했다.

전남은 지난 22일 오후 ‘2019 출정식 및 팬즈데이’ 행사를 통해 선수들이 새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